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도행품(道行品) ③

慧解是意 해혜시의
可修經戒 가수경계
勤行度世 근행도세
一切除苦 일체제고

지혜로운 이 이런 뜻 잘 알아
도와 계율을 즐겨 닦고
부지런히 행하여 세속을 건너
모든 괴로움을 없애버린다

遠離諸淵 원리제연
如風却雲 여풍각운
已滅思想 이멸사상
是爲知見 시위지견

온갖 깊은 수렁 멀리 떠나라
바람이 구름을 거둬 가듯이
이미 여러 생각 멸하였다면
이것이 바른 지견이 된다

智爲世長 지위세장
喜樂無爲 염락무위
知受正教 지수정교
生死得盡 생사득진

지혜가 세상에서 으뜸가는 것

지혜로운 이 道와 계율 즐겨 닦아
세속을 건너 모든 괴로움 없앤다

마음 담박하여 함이 없음을 즐기면
바른 가르침 받을 줄 알아서
나고 죽는 일 다하게 된다

知深行空 지중행공
是爲慧見 시위혜견
龍獸世苦 파열세고
從是道除 종시도제

세상의 모든 것 텅 빈줄 알면
이를 혜견이라 하느니
세상의 괴로움을 아주 싫어해
이 도를 따라 없애버린다

知深行苦 지중행고
是爲慧見 시위혜견
龍獸世苦 파열세고
從是道除 종시도제

세상 모든 것 괴로움인줄 알면
이를 혜견이라 하느니
세상의 괴로움 아주 싫어해
이 도를 따라 없애버린다

衆行非身 중행비신
是爲慧見 시위혜견
龍獸世苦 파열세고
從是道除 종시도제

세상 모든 것 실제 없는 것이니
이를 아는 것 혜견이라
세상의 괴로움 아주 싫어해
이 도를 따라 없애버린다

吾語汝法 오어여법
愛箭爲射 애전위사
宜以自動 의이자족
受如來言 수여래언

내 그대에게 법을 말하노니
갈매의 화살 쏘아버리고
마땅히 스스로 힘써서
여래의 말씀을 받잡아야 한다

吾爲都以滅 오위도이멸
往來生死盡 왕래생사진
非一悔以解 비일정이해
所演爲道眼 소연위도안

나는 모든 것 멸함으로써
가고 올 나고 죽을 다하였다
한 뜻으로 깨달은게 아니니
말하지 않으면 도안으로 이룬 것

駛流澗于海 사류주우해
潘水漾疾滿 반수양질만
故爲智者說 고위지사설

可趣厭甘露 가취복감로

빨리 흘러 바다로 들어가면
출렁대는 물 어느 새 가득차니
고로 지혜로운 이를 위해 말한단
나아가 감로법으로 배를 채워라

前未聞法輪 전미문법륜
轉爲安樂生 전위안중생
於是奉事者 어시봉사자
禮之度三有 예지도삼유

일찍이 듣지 못한 법륜 굴림은
중생을 애저롭게 여김이라
이에 부처를 받들어 모시는 이
그에게 예배하고 삼계를 건넌다

三念可念善 삼념가념선
三亦難不善 삼역난불선
從念而有行 종념이유행
滅之爲正斷 멸지위정단

세가지 선정이랴 바른 공부다
그 셋이 어렵다면 바르지 않다
생각을 좇아서 행함이 있나니
생각깊고 번뇌 없어야 바른 끊음이
된다

龍眼

큰스님 수행한담

“말은 일 즐겁게 하다보면

선산스님 (강화 선원사 조실)

누렇게 빛바랜 창호지 만큼 세월의 풍
상을 지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종이벽새
와 묵향이 진동했다. 무엇이 경계인지도
모르는 숙인이 문지방을 넘어서곤 한참
동안 두리번거리자 고개를 드신 선산스
님은 “거기 서 있지 말고 이리 와 차 한
잔 들게나!” 라는 말로 방문자를 맞았다.

60여년간 부처님 그늘에서 살고 있지
만 선방 보다는 단칸방 생활을 더 좋아
하는 노승입니다. 여지껏 해온 것이라곤
“마음을 닦는데는 오로지 달마조사를 그
리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은사스님의 말
에 의지해온 것 밖에 없어요.

불가에 들어온 것이 1931년, 열 여덟
나이였는데 무엇을 크게 이루겠다는 결
심을 품고 찾아온 것은 아니었어요. 당시
한창 때라는 나이에 걸맞지 않게 몹시
허약해서 산사를 찾아 1년 정도 휴양하
며 심신을 키우라는 어머니의 당부가 있
었어요. 고향에서 가까운 부여 무량사를
찾아 갔습니다.

무량사에는 오군스님이 주석하고 계셨
어요. 이 분은 만공스님께 공부하셨던 선
승이었는데, 인근 사찰에서 선법문이 열
릴 때마다 오군스님을 많이 모셔갔어요.
내가 지금껏 아무 후회없이 달마조사만
을 그리며 절밥을 먹고 있는 것은 따지고
보면 모두 오군스님과 그의 인연에서 비
뚫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일인 관료들이 관할 사
찰들을 방문, 점검하는 ‘초도순시’ 리게
있었어요. 당시 스님들은 초도순시를 매
우 곤혹스러워했어요. 산문을 들어선 일
인 관료에게 스님들이 ‘구복(몸을 깊이
굽히는 것)’ 자세를 강요당했으니까요.

내가 무량사에 있을 때 일인들이 충청
남도 초도순시의 일환으로 무량사에 왔
었습니다. 스님들이 모두 구복을 했는데
유일하게 오군스님만이 깨끗하게 서 있
었죠. 그때 처음으로 선기(禪機)가 무엇
인가를 확실하게 경험했고, 또 그때 스님
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됐지요.

다음날부터 새벽예불에 참석하기 시작
했어요. 꼭두 새벽에 일어나 세수하고 예
불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
었지만, 예불문을 따라 열심히 동참했어
요.

어느날 오군스님이 나를 부르시더니
“마음병을 고치려 왔으면 병을 고쳐야지
무슨 염불이나”며 “달마조사를 그리는
필선(筆禪)으로 마음을 먼저 닦으라”고
엄한 분부를 내리셨어요. 당연히 새벽예
불이 열리는 법당 근처에는 갈 수 없었고,
오직 예불이 시작되는 꼭두 새벽부터

하루종일 달마조사 그리기를 1년 남짓
했어요.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은사스
님의 엄명은 선기만을 탐해 스님이 되겠
다는 그릇된 내 생각을 바로잡아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달마조사는 ‘망상과 욕심은 중생의 다
른 이름들이다. 그대가 망상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대는 이쪽 언덕에 있다. 그대
가 깨어 있을 때 그대는 저쪽 언덕에 있
다... 그러나 한번 그대가 자신의 마음이
비어 있는 것을 알고 어떤 걸모습에도
눈길을 주지 않을 때, 그대는 망상과 깨
어 있을 모두를 초월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망상과 욕심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로
게 하는 것이 해탈’이라는 달마조사의
일갈이 바로 오군스님이 내게 가르치려
고 했던 것이죠.

나는 평생 달마조사를 그렸습니다. 수
천 수만장을 그렸지요. 그러나 그림이 아
니라 한 줄의 선, 하나의 붓놀림으로 달
마스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또 새기는 일
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달마조사의 가

- 1923년 충남 부여 초
- 1931년 오군스님을 은사로 무량사에서 득도
- 1956년 만공스님 문하에서 단청사사
- 1987년 제5회 대한민국문화예술대상전 추천작가
- 현 강화 선원사에 주석



‘달마조사 그리는 筆禪으로
마음을 먼저 닦으라’
은사스님 말씀 60여년 받들어

르침은 궁극의 경지이며, 오군스님이 내
게 그리라고 엄명한 달마조사는 그 경지
에 이르게 하는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선기를 지닌 선승이 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달마조사를 그리는 어눌한
붓놀림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직도 집착
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생각을 저버리
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수행이 부족하다는 반증 아니겠
어요.

내게 1년 동안 달마를 그리게 한 은사
스님은 나의 필선을 지켜보시고는 ‘선산
(善山)’이라는 법명을 열반하기 바로 직

롯 못한다는 말은 듣지 않을걸세. 몸에
익은 필선을 계속 하게나.”

지금 학인들은 출가한 절에서 돈도 주
고 그리지만 당시엔 먹을 것조차 변변치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거의 출가루에 된
장을 넣어 쑨 죽을 먹었지요. 학인들 중
에는 너무 배가 고파서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해방된 다음해 나는 마곡사를 떠나 서
울 돈암동에 절을 개원했어요. 당시 돈암
동은 아주 못사는 달동네였습니다. 이곳
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일자리
조차 없었고, 그나마 일거리가 있는 사람
들도 저녁에 귀가할 때면 어김없이 연탄
2장, 쌀 한 봉지를 들고 다녔어요. 하루
종일 일해봐도 그날 저녁과 다음날 아침
을 겨우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말로 전하는 것
보다는 달마조사를 그리듯이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법
당을 찾아온 신도들 중에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도배일을 시작했어요.

1997년 3월 4일 화요일 주간불교

인터뷰

건강식품 ‘블로화정’ 특허

대구 여래한방병원 시연 스님



시연스님(대구여래한방병원 원
장)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
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블로화정’
을 상품화 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
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블
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
용해 오다 최근 상품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
섰다. 여래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오랜세월 불치병 치료에 전념해
온 시연스님은 건강식품인 블로
화정을 현대화된 의약품으로 선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특허출원자인 시연스님은 “블
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위장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
효능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 감식초음료 시장이
2백50억원대의 규모로 확장돼
있는 것이 현실인점을 감안하면
사업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상업을 주목적으로 하
는 것은 아니다. 블로화정의 판
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99명 대
지에 건립될 5층규모의 한방병원
실력에 쓰여진다. 또 한방병원
건물내에는 무료예식장과 탁아소
도 만든다는 것이 스님의 계획이
다.

블로화정 (不老化精)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
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외에 10여종의 첨
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
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
아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
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격 :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2개월분 400,000원)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김창수 : 033-07-172508

如來健康院

문의전화 : (053)655-2227

법보신문 제409호 1997년 3월 5일 수요일 12

황제

여래한방원 시연스님 ‘블로화정’ 특허 출원



대구에서 여러
건강원을 운영하
며 병고에 시달리
는 환자들을 돌보
오던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외에 10
여가지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블로화정’을 상품

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황제이다.
스님은 “블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위장
질환과 암을 억제하며 노인성 질
환을 예방, 치료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참깨서 노화억제 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
가 입증된 ‘세시미놀’ 성분을 대량
추출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 물질로 지금까

-KBS TV 6시 내고향(9월9일) 방영-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허 설명>
※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하였음